

## 쿠팡, 중기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 소버린AI펀드 750억 투자... '제2의 쿠팡' 육성

‘AI 3대 강국’ 정책기조 동참  
스타트업·성장기업 집중 투자  
“‘제2의 쿠팡’으로 AI산업 기여”

쿠팡이 정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 우리나라 1호 유니콘 기업으로,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발맞춰 제2의 쿠팡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11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AI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의 알파코리아소버린AI펀드(스케일업 AI융합분야)에 7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사 SBVA가 운영사(GP)로 참여하는 해당 펀드에는 쿠팡이 75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이에 매칭하여 750억원을 출자한다.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AI기술기반의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쿠팡의 이번 투자 결정은 정부의 AI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원형사진)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육성정책에 협력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참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미국 뉴욕증시(NYSE)에 상장한 경험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AI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쿠팡'을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쿠팡 관계자는 “새로운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14개사에 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현재 AI기술 등 보유 기술특

허만 2100개(지난해 말 누적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160개)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다. AI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쿠팡은 올 초 메타, 알파벳 등 글로벌 테크기업과 함께 미국 특허분석기업 '텍시스넥시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쿠팡은 AI기반의 물류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서도 대규모 지역 투자를 이어왔다.

수천만원의 상품 주문을 AI와 머신러닝 기술로 예측해 운영하며, 독자적

인 엔드투엔드(end-to-end) 배송네트워크를 구축해 로켓배송·당일배송 등을 시작했다. 지난 2022년에는 대만 시장에 진출, 현지 로켓배송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특별기획전, 대만K-중기브랜드전, 중소기업에 물류시스템 개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누적판매 3조원을 달성한 착한상점을 확대 개편한 '착한상점 2.0'을 통해 지역중소상인의 매출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은 테크기반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AI 기술기반의 물류 및 고객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지역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임팩트 펀드 운영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발굴

아모레퍼시픽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사회·환경 임팩트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글로벌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공동 투자해 개발도상국의 사회·환경 과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8월 한국국제협력단과 약정을 체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향후 5년간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사회·환경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임팩트 펀드를 운영하며 탄소 감축, 플라스틱 절감 등 핵심 과제를 수행한다.

또 지역 사회 청년과 함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캠페인도 펼친다.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신 뷰티 지견을 나누고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투자 활동으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mllee236@

## KGC인삼공 “홍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전 확인”

고지혈증 유발 핵심 단백질 억제  
“예방·보조치료제로서 가능성 확인”

홍삼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하는 기전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

KGC인삼공사는 홍삼이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핵심 단백질인 PCSK9 발현을 억제해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춘다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홍삼이 지질 수치를 낮추고 고지혈증 및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그 분자적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KGC인삼공사 연구개발(R&D) 제품화연구소 연구팀의 이번 연구결과는 자연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 저널인 사이언티

픽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고지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C 상승,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C 감소,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한 상태를 뜻한다.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LDL-C) 증가는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인 PCSK9가 관여한다. PCSK9은 LDL-C를 제거하는 수용체를 분해해 혈중 LDL-C 수치를 높인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치료 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지혈증의 치료제 중 일부 1차 지질 저하제는 PCSK9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으며 근육 관련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KGC인삼공사 연구팀은 프로테오믹

스(Proteomics) 분석법과 세포·동물실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홍삼이 혈중 지질 개선에 작용하는 핵심 기전을 규명했다.

홍삼 투여군과 대조군의 단백질 발현 변화를 비교한 결과, 587개 단백질의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특히 지질 대사의 핵심 표적인 PCSK9 단백질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 간세포(He pG2)에 1차 지질 저하제를 처리했을 때 PCSK9이 투여량에 비례해 증가했으나, 홍삼을 함께 투여하면 이러한 발현이 유의하게 억제됐다.

급성 고지혈증 마우스 모델에서도 홍삼의 효능이 확인됐다. 마우스를 홍삼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누고 홍삼 투여군은 7일간 홍삼을 경구 투여한 후,

급성 고지혈증을 유도했다. 지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홍삼 투여군(200mg/kg)은 대조군에 비해 중성지방(TG) 57%, 총콜레스테롤 (TCHO) 30%, LDL-C가 35%로 감소한 반면, HDL-C는 16% 증가했고, 혈중 지질 개선과 함께 PCSK9 단백질 분비 역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

김상규 KGC인삼공사 R&D 제품화 연구소장은 “홍삼의 지질개선 생리활성, 안전성, 섭취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고지혈증 예방 및 보조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홍삼 효능의 과학적인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보령, 안산캠퍼스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보령은 경기 안산에 위치한 보령 안산 캠퍼스의 '페니실린 생산 시설 증설'을 위한 공장 확장과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생산 시설은 연면적 기준 840평에서 1320평 수준으로 50% 이상 늘어나고 연간 생산 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된다. 또 포장 공정 자동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이뤄진다.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증설로 보령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구용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지난

2023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보령은 현재 국내 수탁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국내 최대 경구용 페니실린 제조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보령 박경숙 생산품질부장은 “필수의약품 생산 시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안산 캠퍼스 설비 투자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의약품 생산·공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lee236@

## 일동제약, 동남아시아 ‘드롭탑’ 공급 확대 (고지혈증 치료제)

인니 파트너사 칼베 파르마 공급계약

일동제약이 인도네시아 파트너사 칼베 파르마에 고지혈증 치료제 ‘드롭탑’을 확대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최근 칼베 파르마의 수출입 및 유통 담당 계열사인 칼베 인터내셔널과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드롭탑을 공급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드롭탑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로, 체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인 로수바스타틴과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는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복합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일성

금액의 선급금 수취와 함께 향후 드롭탑 공급으로 발생하는 마일스톤 수령 권리도 확보하게 됐다.

일동제약은 지난 2020년 칼베 파르마와 ‘드롭탑’ 공급 관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해당 품목을 수출해 왔다. 현지 상품명은 ‘로제트’이며 발매 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25%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내 이상지질혈증 분야 복합제 시장에서 드롭탑은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추가 계약을 맺은 4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드롭탑의 입지를 넓히며 회사가 보유한 다른 품목에 대한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 신제품



## 정관장 GLPro 혈당밸런스

정관장이 식후 간편하게 혈당과 피로 관리를 돕는 기능성 신제품 ‘GLPro 혈당밸런스(사진)’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출시된 ‘GLPro 혈당밸런스’는 식약처로부터 공식 인정 받은 독점소재인 홍삼(KGC05pg)과 필수영양성분을 활용한 혈당 조절 및 피로 케어 전문 제품으로, 과학적 복합 설계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비타민B군 6종, 비타민C, 비타민D, 크롬, 아연이 포함되어 혈당·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

## 엘지유니참 라이프리 슬림언더웨어

엘지유니참은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 ‘라이프리’에서 요실금용품 ‘슬림언더웨어’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엘지유니참의 생리대 브랜드 ‘썬피’의 기술력을 적용해 속옷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착용감을 갖췄다. 기저귀 착용 면에 신축 소재를 적용해 사용자 체형에 따라 몸에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최대 500ml의 넉넉한 흡수량과 통기성이 뛰어난 ‘에어커버시트’, 99% 소취 기능이 더해졌다.

/이정하 기자